

장성군, 황룡강 성장투어 프로젝트 ‘시동’

1000만 관광도시 목표 관광거점 등 4대 전략

전라남도 장성군이 황룡강 관광기반 구축 기본 계획을 수립해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

16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군청 상황실에서 ‘황룡강 관광기반 구축 기본 계획 수립 최종 용역보고회’를 가졌다.

기본구상의 제목은 ‘황룡강 성장투어 프로젝트’다. 장성군 도시브랜드 ‘성장장성’을 반영한 △관광 거점화 △생활 관광화 △친수 도시화 △지속 가능화 4개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관광 거점화’를 위해서는 물 문화와 생태 보전 가치를 알리는 ‘황룡강 물문화관’ 건립, 황룡강 축제장과 읍시가지에 있는 ‘황룡 페스티벌 광장’ 조성, 숙박·상업단지를 조성하는 ‘황룡 베네치아 타운’ 구축 등이 제시됐다.

황미르랜드에 넷공원, 미니폴장 등을 조성하는 ‘황미르 가족랜드’ 개발, 황룡강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대와 야간경관을 갖춘 ‘성장장성 별빛누리’ 조성, 안산둘레길 미디어파사드 설치, 장성호 유람선 운영 등도 제안됐다.

‘생활 관광화’ 부문에선 장성호에 스마트 미디어 계단과 전망타워 엘리베이터, 야간 홀로그램 설치 제안과 황룡강 꽃길을 달리는 ‘황룡열차’ 운행, 장성호~필암서원 구간 투어버스 운영 등이 관심을 끌었다.

‘친수 도시화’ 부문에서는 기업·동호인 대상 ‘황룡워크숍파크’ 조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자립형 ‘황룡 RE100타운’ 건립, 수생식물 서식처 복원 등의 계획이 주를 이뤘다.

황룡강 관광의 ‘지속가능화’를 위해선 수변경관형 도시계획과 경관조성지침(가이드라인) 수립, 민관협치체계(거버



장성군이 지난 10일 군청 상황실에서 ‘황룡강 관광기반 구축 기본계획 수립 최종 용역보고회’를 열었다.

넌스)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매년 봄·가을마다 축제가 열리는 황룡강은 연간 100만명이 넘는 방문이 이어지는 대표 명소다”며

“기본계획 수립을 첫걸음 삼아 황룡강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겠으며 ‘1000만 관광도시’로 발돋움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전남농협·(사)농가주부모임, 제주서 ‘아침밥먹기’ 캠페인

농협전남본부와 (사)농가주부모임전남도연합회는 지난 14~15일제주도에서 도민들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남쌀 홍보 및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이틀 동안 전남도연합회는 농협 제주본부의 직거래장터와 유명관광지를 찾아 전남쌀을 나눠주고 아침밥 먹기 중요성을 알렸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비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을 안내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동참도 호소했다.

이광일 전남농협 본부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제주를 찾아 전남쌀을 홍보하고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적극 실시해준 농가주부모임전남도연합회에 감사드린다”며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농협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정혜숙 회장은 “도입원들과 함께 제주에서 내 건강을 지키는 아침밥의 중요성을 알리고 명품 전남쌀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적극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남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쌀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정립하기 위한 활동에 농가주부모임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가주부모임전남도연합회는 회원 2849명이 활동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봉사단체다.

조진용 기자

‘전국 종별 농구선수권대회’ 영광군, 25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전라남도 영광군이 오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하나은행 제80회 전국 남녀 종별 농구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

16일 영광군에 따르면 올해로 80회를 맞이한 종별 농구선수권대회는 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 및 실내보조체육관, 법성고등학교, 흥농초·중학교 실내체육관 5개소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농구협회와 전라남도농구협회, 영광군농구협회가 주최·주관한다.

남녀 초·중·고·대학부와 여자 실업부 등 10개 부에 걸쳐 전국 150개 팀, 3000여 명의 선수 및 임원들이 참가한다.

대회 일정은 각 부별 예선을 거쳐 결선, 8강전, 준결승, 결승전 순으로 진행되고 대한민국농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 경기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영광=김도윤 기자

여름철 의료폐기물 특별감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의료폐기물의 관리가 취약해지는 여름철을 맞아 다음달까지 광주·전남 지역 의료폐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특별 감시대상은 의료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관내 종합병원, 수집·운반업체, 소각업체 등 총 15개소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하기 쉬운 냉장 설비 오작동이나 폐기물 보관기준 준수 미흡 등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을 중점 감시한다.

김영우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의료폐기물 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배출자와 처리업체 모두가 책임감 있게 의료폐기물을 관리하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산강청은 2014년부터 관내 종합병원과 자율관리 협의체를 운영하여 폐기물 제도개정사항 공유 및 대형·중소병원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의 의료폐기물 취급 자율적 역량 향상에 전폭 지원하고 있다.

조진용 기자



지난 1일 부터 나주시가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여름나기 한방교실’을 운영하고있다. 한방교실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기공체조를 하고 있는 모습.

나주시 제공

나주시보건소, ‘어르신 건강한 여름나기 한방교실’

기초건강측정·운동지도 등 구성

전라남도 나주시가 오는 9월30일까지 관내 무더위쉼터 경로당 및 마을회관 6개소에서 ‘어르신 건강한 여름나기 한방교실’을 운영한다.

16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건강 관리 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통합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여름철 건강 관리 능력 향상을 돕는 프로그램

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혈압·혈당 검사 등 기초건강측정, 한방공중보건의 1:1 건강상담,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지도, 한방 기공체조, 온열질환 예방 및 여름철 건강관리교육, 웰다잉(Well-dying)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한방기공 체조 프로그램은 기혈 순환 개선과 관절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저강도 운동으로 경로당 3개소에서 12주 동안 진행된다.

웰다잉 교육은 100세 시대에 맞춰 행복한 노후를 위한 방법, 연명의료결정법 등에 대해 안내하고 희망자에 한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을 돕는다.

강용곤 나주시보건소장은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의약 건강관리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무더위쉼터에서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담양군, 가축 폭염 피해 대응 ‘총력’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등

전라남도 담양군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축산농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관내 650여 축산농가에 폭염 대비 축사 관리 요령을 수시로 문자 안내하고 있으며 양돈·오리·닭 등 취약 축종 농

가 45곳에는 1: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폭염 대응 방법과 사육 시 주의 사항을 농가별 상황에 맞춰 안내하고 있다.

피해 예방을 위한 △가축재해보험 지원 △축사 열차단제 도포 △낙농가 환풍기 설치 △가축 폭염 피해 예방 시설 지원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등 다양한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큰 규모의 가축 폐사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으며 긴급 예비비 6000만원을 편성해 고온스트레스 완화제를 취약 축종 농가에 오는 18일까지 신속하게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폭염은 사람뿐 아니라 말 못하는 가축에게도 큰 고통이다”며 “앞으로도 행동 요령 홍보는 물론, 현장 중심의 행정·재정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치매예방·인지강화 프로그램’ 나주시, 건강상태 맞춤형 제공

전라남도 나주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세분화된 맞춤형 ‘치매예방·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는 60세 이상 정성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치매예방교실과 모락(樂)모락(樂) 프로그램, 인지 저하나 경도인지장애에 어르신이 참여하는 인지강화교실, 경증 치매 어르신이 참여하는 치매환자쉼터 및 ‘홈콜링 뇌총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치매 예방 교실은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센터 분소인 공산보건지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및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치매 환자 쉽터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치매 초기 단계 환자들이 낮 시간에 보호받으며 인지기능 강화 활동, 일상생활 유지 훈련, 사회적 교류 등을 할 수 있다.

6월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홈콜링 뇌총총+’ 프로그램은 오는 9월까지 운영하며 치매예방관리를 위한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인지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나주=조대봉 기자